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 임박

- 아일랜드 은행권 부실로 크게 불안정해진 유럽의 금융시장은 유로집행위원회(EC)·국제통화기금(IMF)·유럽중앙은행(ECB)의 아일랜드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결정을 암묵적인 아일랜드 구제금융지원으로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임.
 - EC·IMF·ECB는 아일랜드 은행의 채무 규모,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안과 채무변제 수준의 적정성 평가 등 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함.
 - EC 등의 구제금융 지원규모는 추정기관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800억~1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
 - 월스트리트 저널은 1,0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반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800억 유로로 예상함.
 - AFP는 이 가운데 은행에 대한 지원금이 50억~2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봄.
 - 시장은 아일랜드 구제금융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럽 증시는 11월 17일 중 상승세로 돌아섰으며, 엔과 달러에 대한 유로의 가치도 상승세를 보임.
 - 유럽의 주가지수인 스톡스 유럽600은 전일대비 0.50% 상승하였으며, 유로·달러 환율과 엔·유로 환율은 각각 0.39%, 0.53% 상승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시현함.
- 한편, 영국의 재무부장관은 EC·IMF와는 별도로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.
 - 영국이 아일랜드의 은행권 부실에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및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경제적으로는 첫째, 아일랜드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요 무역상대국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경제 성패가 영국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며, 둘째, 아일랜드 은행에 대한 영국의 위험노출 규모가 1,5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은행의 파산은 곧 영국의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.
 - 정치적으로는 유로지역 구제금융기금 참여를 거부했던 영국 보수 정치세력의 성향에 따라 유럽연합과의 공조보다는 독단적인 지원이 선호된 것으로 보임.
 - 유로지역 국가들은 아일랜드가 국제 원조를 받을 경우 영국 은행들이 주요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영국의 지원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임.

(Financial Times 11/17, Wall Street Journal 11/17, 11/16)